

문화콘텐츠로서의 당산숲 인식 증진을 위한 방법론 고찰 -당(堂)과 연계시킨 제주도 저지오름 대안 탐방로 모색을 사례로-

Perspectives of methodology for Heighten Public Awareness of Dangsan Forest
as Cultural Contents

-Case of Alternative Trail of Jeoji Oreum Connected with Dang in Jeju Island-

최재웅*, 김동엽**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 성균관대학교 조경학과**

Jai-Ung Choi(juchoi0530@korea.kr)*, Dong Yeob Kim(ydkim@skku.ac.kr)**

요약

전통마을숲은 한국을 대표하는 전통 문화경관으로서 국가적 문화자산이다. 한라산 자락에 있는 기생화 산 오름의 수는 총 368개이고, 제주도 전역에 총 391개의 신당(神堂)이 있는데, 근래에 관광객을 위한 올레길, 도로 개설 등으로 인해 제주 신당이 급속히 훼손되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이제 문화콘텐츠는 로컬리티(지역성)와 글로벌리티(세계성)를 같이 갖추어야 하며, 우리의 고유한 콘텐츠로서의 글로컬문화콘텐츠 생산이 필요하다. 이 연구는 당(堂)과 연계한 제주도 저지오름 탐방로 개선방안을 고찰한 것이다. 당숲 구간을 오름 탐방로와 연계하면 실생활에 살아있는 전통문화경관을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당과 오름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는 제주도 농어촌마을들이 탐방로를 따라 그 테마와 원형이 잘 보전, 관리된다면 세계적인 문화유산으로서의 가치를 지닌 곳으로 인정받을 수 있을 것이다.

■ 중심어 : | 글로컬문화콘텐츠 | 당산숲 | 당제(당굿) | 탐방로 | 저지오름 |

Abstract

Traditional village forests in the Jeju Island represent unique cultural landscape with a history of more than several hundred years as a national cultural asset in Korea. There are 368 Oreums, parasitic volcanoes, and 391 shrines of Dang(Divine place) in Jeju. Currently, the shrines of Dang are damaged by the Jeju Olle trail path and road constructions. It's time for cultural consents to be obtained with locality and globality. And need to produce our own unique contents, glocal cultural contents. In this study, the establishment of trail path of Jeoji Oreum in relation to the Dang in the Jeju Island was investigated. By linking the Dangsan forest to the Jeoji Oreum trail path, it enables the path to contact with traditional cultural landscape. Rural villages in Jeju with the Oreum and Dang are expected to get an international attention as to have traditional cultural landscapes of Korea. It needs to be managed to retain their original form and in connection with the trail path.

■ keyword : | Glocal Cultural Contents | Dangsan Forest | Dang Ritual(Shamanic Ritual of Dang) | Trail | Jeoji Oreum |

* 본 연구는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 농업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과제번호: PJ007952032011)의 지원에 의해 수행되었 습니다.

접수일자 : 2013년 10월 01일

수정일자 : 2013년 10월 24일

심사완료일 : 2013년 11월 01일

교신저자 : 최재웅, e-mail : juchoi0530@korea.kr

I. 서 론

제주도는 세계유일의 유네스코 자연환경 분야 3관왕이라는 국제적 위상을 가진 지역이며, 수백년의 역사를 지닌 전통마을숲은 한국을 대표하는 전통 문화경관으로서 국가적 문화자산이다. 한라산 자락에 산재하는 기생화산인 오름의 수는 총 368개이고, 제주도 전역에 총 391개의 신당(神堂)이 있다[1][2]. 이처럼 제주도 농어촌마을의 삶과 문화·전통경관은 당(堂) 및 오름과 불가분의 관계로 엮여져 있다. 육지에서의 '당산숲'이 있는 공간을 제주도에서는 보통 '당'(堂)으로 통용하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저지리 당과 같이 당숲은 외지인들로부터의 훼손을 우려하여 노출되어 있지 않고, 숨겨져 있다시피 한 경우가 많다. 그러나 일부 올레 이용객들의 무분별한 이용으로 인해 올레길의 경관이 훼손되고, 관광객을 위한 도로 개설 등으로 인해 제주 신당이 급속히 훼손되고 있는 시점에서, 당숲에 대한 이해가 적은 일반인들에게 그 존재를 노출시키는 것이 적절하지 않을 수 있다. 하지만, 오름의 존재로 인해 제주도가 '세계7대 자연경관'으로 선정되었고 국내외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당과 오름을 찾게 되고 개발 압력도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므로, 이제 적극적으로 당숲의 존재를 널리 알리고 아름답게 가꾸어 나가려는 노력이 필요한 때이다. 이제 문화콘텐츠는 로컬리티(지역성)와 글로벌리티(세계성)를 같이 갖추어야 하며, 우리의 고유한 콘텐츠로서의 글로컬문화콘텐츠 생산이 필요하다[3]. 한국의 전통마을숲인 당산숲이 중국의 feng-shui forest(풍수림, 風水林), 일본의 satoyama(里山), shinto shrine forest(신사림, 神祠林) 등과 같이 세계인이 주목하는 가치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먼저 국내에서 이들 숲이 올바로 알려지고 후세대에 물려주어야 할 홀륭한 문화유산이라는 인식이 사회 메카니즘으로 자리 잡아야 할 것이다.

제주도 서부의 중산간마을인 저지리에는 저지오름이라는 아름다운 오름이 있고, 오름 바로 아래에 당이 있다. 현재의 오름 탐방로는 오름 만을 올라갔다 내려오는 것으로서, 마을 앞의 오름 탐방안내도에는 저지오름과 붙어 있는 당숲은 소개되지 않고 있다.

베니스현장(1964) 등 세계문화유산과 관련한 국제적

논의에서, 진정성(authenticity)과 함께 가장 중요시하는 것은 문화유산의 향유권이 다음 세대에도 지속가능하게 이어질 수 있도록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는가의 여부이다[4]. 이 논문의 목적은 탐방로가 개설되어 있는 저지오름의 관리 방안 및 오름과 당숲을 연계한 탐방로를 제시하여 글로벌문화콘텐츠로서의 의미를 고찰함으로써, 오름과 연계된 당숲의 가치를 제고하고자 하는 것이다.

II. 이론적 고찰

1. 문화콘텐츠 관련 연구동향

근래에 문화유산을 대상으로 한 문화콘텐츠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문화콘텐츠란 곧 문화의 원형(original form+archetype) 또는 문화적 요소를 발굴하고 그 속에 담긴 의미와 가치(원형성, 잠재성, 활용성)를 찾아내어 매체(on-off line)에 결합하는 새로운 문화의 창조과정이다([5]에서 재인용). 문화유산, 문화자원을 활용한 문화콘텐츠는 바로 보존을 전제로 한 가치(기능, 능력)의 확대과정이며, 따라서 문화유산의 문화콘텐츠 개발은 문화유산에 대한 가치의 발견과 가치화의 과정이 수반되어야 한다. 가치의 발견과 가치화의 과정은 가치의 재인식에서 시작하여 가치의 전환, 가치의 재창조, 가치의 극대화, 가치의 융합이라는 선순환 구조로 이루어져 있다[6][7]. 최근 유네스코(UNESCO)를 중심으로 하여 자연성지(sacred natural sites)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고 있는데, 국내 천연기념물 식물 중 63건이 자연성지에 해당되었으며, 생물다양성, 문화성, 경관 및 미적 가치와 함께 관광자원으로서의 가치를 지니고 있었다[8]. 명승 문화재의 경관자원 벌굴을 위한 조망지점 분석[9], 문화콘텐츠 특수성을 반영한 문화기술 분류체계 연구[10], 장소가치 개념에서의 플레이스 브랜딩 평가 방안[11] 등도 같은 맥락으로 이해될 수 있다.

2. 전통마을숲 관련 연구동향

그동안 전통마을숲의 가치를 제고하기 위한 연구와 노력은 조경학, 지리학, 임학, 생태학, 민속학 등 다양한

분야에서 계속되어 왔다[12-15]. 전통마을숲 연구는 비보숲의 관점에서 많이 다루어져 왔는데, 비보숲의 문헌적 명칭은 비보수(裨補叢)이다. 숲은 조산(造山)이 지니는 상징성, 신양성과는 달리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비보가 가능하다. 따라서 비보숲은 방풍, 보온, 흥수 방지, 휴양소 역할을 겸하는 다기능적인 비보 수단이다[16]. 우리나라 농어촌의 전통마을숲은 당산숲과 비보숲의 조합으로 구성되어 있다. 내륙의 농촌 전통마을숲은 마을 내에 당산숲이 하나만 있거나, 당산숲¹⁺비보숲(당산숲²)의 구조로 되어 있다. 즉, 첫 번째는 숲이 한 개로써 하천변에 당산숲이 하나만 있는 형태이다. 두 번째는 숲이 두 개로써 하나는 하천변의 당산숲이고, 다른 하나는 하천변에 있는 띠형의 비보숲 또는 두 번째 당산숲이 있는 형태이다. 혜안가의 경우도 나타나는 양상은 내륙과 비슷하다. 전통마을숲에서 당산제를 지내는 숲이외에 비보의 목적으로 조성된 숲은 비보숲이다[17]. 당산숲은 마을주민들이 ‘당산제(堂山祭)’를 지내는 숲이며 토속신이 살아 있는 마을의 성역으로, 주로 음력 정월대보름 저녁에 거행되는 당산제는 일종의 물활론(物活論, animism)적인 전통생활문화이다[18]. 천연기념물 지정 당산숲·비보숲의 명칭 부여 및 지정 물량 실태가 보고되었고[19], 천연기념물 제309호인 ‘부산 구포동 팽나무’는 ‘부산 구포동 당숲’으로 명칭이 변경, 지정되었다[20].

최근 대통령직속 국가브랜드위원회 웹사이트에 영어(제목-Korea's Beautiful Sacred Forest: Dangsan Forest), 중국어, 일본어, 한글 등 4개 국어로 제주의 중산간마을인 상명리가 포함된 당산숲의 존재가 소개됨으로써[21], 당산숲의 국제적 인식 확산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국립산림과학원(2012)에서는 ‘한국정원의 세계화,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국제심포지엄을 개최하면서, ‘마을의 정원, 한국 전통마을숲의 유형’이라는 자료를 발표하였는데, 전통마을숲을 비보숲의 관점에서 바라본 것이다[22].

3. 제주도 당(堂)·오름 관련 연구동향

제주도 대부분 마을에는 민간신앙의 대표적인 유적으로 마을의 수호신이 좌정해 있는 당(堂)과 포제단(醡

祭壇)이 있다. 이곳에서 심방이 주도하는 무속식 제의인 당굿과 남성들이 주관하는 유교식 제의인 포제가 거행된다. 포제단은 자연석으로 제단을 만들고 돌담으로 울타리를 둘러쌓아 신성한 곳임을 나타낸다. 마을을 지키는 당신(堂神)의 집은 돌담으로 둘러싸인 수백 년 묵은 ‘팽나무’이거나, ‘케(바위굴)’등의 형태를 하고 있다. 제주도의 당은 본향당(本鄉堂), 일훼당(七日堂), 여드렛당(八日堂), 해신당 등으로 불린다[23]. 제주에는 마을마다 ‘할망당’이라는 신당(神堂)이 있다. 할망당에 다니는 사람들 즉, 단골, 당골들은 주로 여성이다. 제주의 할망당은 매우 소박하다. 지붕이 있고, 네 기둥이 있는 집을 가진 여신은 몇 안 된다. 그들의 집은 대개 자연 그대로의 지형지물을 이용한 친환경적인 집이다. 가장 많은 형태는 몇 백년된 아름드리 고목을 집으로 삼는 경우로 수종은 주로 팽나무나 느티나무이다[24]. 2008~2009년에 걸쳐 제주도 전역의 신당을 조사한 결과, 제주도에는 제주시권에 192개, 서귀포시권에 199개 등 총 391개의 신당이 있는 것이 확인되었다. 세계자연유산인 제주도의 아름다운 경관 뿐만 아니라 제주인의 삶의 양식이 녹아 있는 자랑거리를 전 세계인에게 보여주는 방안에 대해 생각해야 한다. 대표적인 것이 제주의 신당과 굽을 중심으로 한 무속신앙이다. 제주 신당을 탐사하는 단독 문화관광 상품 개발도 필요하다[2].

한라산 자락에 산재하는 기생화산인 오름의 수는 368 개로서, 한 섬이 갖는 기생화산의 수로는 세계 최다이다. 45개 동, 135개 리 중에서 오름이 없는 마을은 18개 동, 45개 리 뿐이다. 우리 조상들은 오름자락에 삶을 붙여 살면서 뼈를 묻어 왔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제단 또는 당이 있었거나 있는 오름은 송당리 당오름 등 24 개이다[25]. 이러한 자료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으나, 저지리와 같이 오름(저지오름) 기슭에 당이 있는 경우도 오름과 연관된 당이라고 할 수 있다. 높이 약 4.5m 정도의 동산으로 이루어진 제주시 한림읍 상명리 당산숲의 가장자리는 비스듬한 기울기를 가진 용암석으로 둘러싸여 있고, 제단과 당산나무는 정상부 지면에서 용암석이 1.5~2m 정도 움푹 들어간 곳에 위치하고 있다. 화산활동의 결과 생겨난 상명리 당의 지형은 옛 마을사람들이 외경심을 갖고 당을 조성할 만한 조건을 지닌 곳

이다. 제주도 마을의 전통경관은 자연경관의 지표면(오름, 용출수 등)에, 인간이 의지해서 추가로 만들어 놓은 문화경관(당금, 포제단금 등)으로 조성되어 있다. 당과 오름을 중심으로 한 이러한 전통적인 제주도 마을공간은, 전통마을숲이 있는 육지의 마을공간과 유사한 모습을 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다만, 육지의 마을 뒷산을 ‘오름’이 대신하고 있고, 육지와 달리 당·당산 외에 ‘포제단’이라는 장소가 추가되어 있다[26].

4. 탐방로 시책 관련 연구동향

제주도에 올레길이라는 마을 골목길 탐방로가 개설된 이후, 정부 부처, 지자체 등에서 각종 탐방로 사업이 경쟁적으로 추진되고 있는데[표 1], 그 과정에서 환경·경관 훼손의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다.

표 1. 기존 탐방로 시책(사업) 사례

부서	탐방로 명칭	길이 (km)	내용
(사)올레	올레길 코스	20 내외	제주도 골목길 탐방
환경부	전국 생태 탐방로	국가생태 탐방로 1,300	생태탐방 기회 마련 (환경부)
	광역생태 탐방로	600	생태탐방 기회 마련 (시·도)
	지역생태 탐방로	600	생태탐방 기회 마련 (시·군·구)
국토 해양부	개발제한구역내 ‘누리길’ 선정	–	팔공산 누리길(대구시) 등
행정안전부	‘명품 녹색길’	–	실무협의(2010)
문화체육 관광부	이야기가 있는 문화생태 탐방로	–	‘담양 수목길’ 등 10곳 선정(2011)
문화재청	–	–	‘대관령 옛길’ 명승 지정(2010)
산림청	국가 숲길	백두 대간숲길 680	등산로 보호, 체계적 관리(산림청)
		국가숲길 1,000	등산로 보호, 체계적 관리(산림청)
		지역숲길 –	등산로 보호, 체계적 관리(시·도)
		지방숲길 –	등산로 보호, 체계적 관리(시·군·구)
지방자치단체	서천군 생태문화 탐방여행길 등	–	–

III. 연구내용 및 방법

1. 조사대상지

‘오름’이라는 특수한 지형이 있는 제주도 당금의 특

성을 살피기 위한 연구를 서귀포시 보목동 등을 대상으로 2006년부터 시작하였는데, 이 연구의 일환으로 오름 정상의 분화구까지 탐방로가 개설되어 있는 저지오름과 당금이 있는 한경면 저지리를 조사대상지로 선정하였다. 약 400년 전에 마을이 형성된 것으로 알려진 저지는 제주 서부의 전형적인 중산간마을로서, 최근에는 마을내 저지오름이 포함된 제주올레 13코스(용수~저지), 14코스(저지~한림)가 개설되어 올레꾼들의 방문이 잦다. 행정안전부에서 지정한 정보화마을로서 ‘저지 예술마을’로 소개되고 있고, 사단법인 「한국에서 가장 아름다운 마을연합」이 ‘한국에서 가장 아름다운 마을’로 선정한 마을이다(2012. 8). 저지는 오름과 연계되어 있는 제주도 전통마을숲인 당금의 물리적 구조에 대한 인식을 제고시킬 수 사례지라는 것에 의미가 있다.

한편, 교래리 산굼부리는 1979년에 천연기념물 제263호(명칭: 제주 산굼부리 분화구)로 지정되면서, 분화구 안에 서식하는 조류 및 희귀식물 보호를 위해 탐방로를 제한하는 관리체계를 갖추고 있기 때문에 대안 탐방로를 찾기 위한 비교 대상지로서 선정하여 조사하였다. 산굼부리는 한라산의 기생화산으로, 화산이 폭발하기 이전에 마그마 안에 있는 가스나 수증기의 폭발로 인하여 화구 주위에 쇠설물(瑣屑物)이 쌓여 생긴 마르(marr)형 분화구이며 다른 분화구와 달리 낮은 평지에 커다란 분화구가 만들어져 있다. 한국에서는 산굼부리 분화구가 유일한 것이고, 세계적으로도 독일과 일본에 몇 개 밖에 없는 자연유산이다[27].



그림 1. 조사대상지 위치

2. 연구방법

문헌고찰[1][2][27-29] 및 2006년부터 시작된 제주도 당숲에 대한 현장답사를 통해 조사대상지로 선정된 저지리 당과 오름의 실태를 조사하였다. 글로벌문화콘텐츠로서의 의미는 문화콘텐츠 관련자료를 통해 고찰하였다. 조사 일정으로서, 2011년 6월의 사전조사에서는 이장(김상원) 등 주민면담을 통해 마을과 당·당숲, 오름에 대한 고증을 구하였다. 2011년 7월의 실태조사에서는 당 등 문화경관과 오름 등 자연경관을 조사하였다. 조사항목은 마을현황, 당숲의 위치, 형상, 규모, 임상, 당산나무 수종, 관리·이용 및 당제 실태, 당 출입구 등이었다. 당숲의 위치, 크기는 실측하고 오름 등의 마을공간 구성요소와 함께 1/5,000 지형도에 표시하였다. 교래리 산굼부리에 대해서는 2010년도에 사전답사를 거친 후, 2011년 10월에 분화구 둘레 탐방로의 개방구간 및 폐쇄구간 현황을 조사하고, 관람객의 이용행태를 관찰하였다. 이 기간에 저지리 당·당숲, 오름에 대한 보완조사를 함께 하였고, 2012년 5월 10~18일에 저지리를 포함한 제주도 답사기간 중 최종 보완조사를 하였다. 마을부녀자들이 참석하여 거행되는 당제는 2013년 정월 7일(양력 2월 16일) 아침에 참관하였다.

IV. 저지오름 탐방로 대안 고찰

1. 저지오름의 특성 및 현 오름 탐방로 실태

1.1 저지오름·당의 공간 특성

중산간마을인 한경면 저지리에서 당 등 전통경관과 관련된 마을공간 구성요소는 [표 2]와 같다. 예전에 닉나무(楮)가 많이 자생하여 닉돌오름(楮旨岳), 오름의 모양새가 새의 부리와 비슷하여 새오름이라고도 부르는 저지오름은 저지리를 수호하면서 한경면을 대표하는 오름이다[1]. 기원전 25~20만 년 전에 형성된 저지오름 분화구는 둘레 800m, 직경 255m, 깊이 62m의 규모로 되어 있으며, 주요 식생으로는 곰솔, 상산 등 70과 220여 종이 자라고 있다. 과거 수십 년 전 분화구 밑에서 마을 사람들이 유채, 보리, 감자 등과 같은 작물을 재배하였다[27].

거의 원형에 가까운 형태의 저지오름과 분화구는 [그림 2]와 같은 모습을 보인다. 저지리 당숲은 저지오름의 북쪽 방향에 인접해 있다. 제주신당보고서(2008)는 저지리 당을 ‘저지리 본향 당멸 허릿당(할망당)’으로 소개하고 있다. 당숲에서 돌담으로 둘러싸인 제단 부분은 10×7m 크기의 작은 공간으로 제단 뒤쪽에 신목 역할을 하는 보리수나무 가지가 덩굴을 이루고 있다. 돌담 밖에 큰 팽나무 두 그루와 곰솔이 있다. 한편, 이전부터 지내오던 포체는 제주 4.3사건 후 중단된 채 현재에 이르고, 그 공간도 방치되어 있다.

표 2. 저지리 마을공간의 구성요소

구분	문화경관		자연경관
공간 구성요소	당숲	포제단숲	저지오름
내용	23×145m (훈효림)	방치 상태	겉면 :곰솔림 분화구 안 : 70과 220여 종
제의	당제 : 매 3, 7일	포제 : 중단 상태	×



a: 위성사진



b: 저지오름 전경

그림 2. 저지오름 및 당숲

1.2 저지오름 탐방로 실태

마을주민들이 이전에 방화선으로 구축하였던 임도(林道)를 이용하고 있는 현재의 탐방로는 밑 숲길을 통해 오름 정상에 오른 후 문화구 주변의 숲길을 한 바퀴 돌고 내려오는 것으로 되어 있다[그림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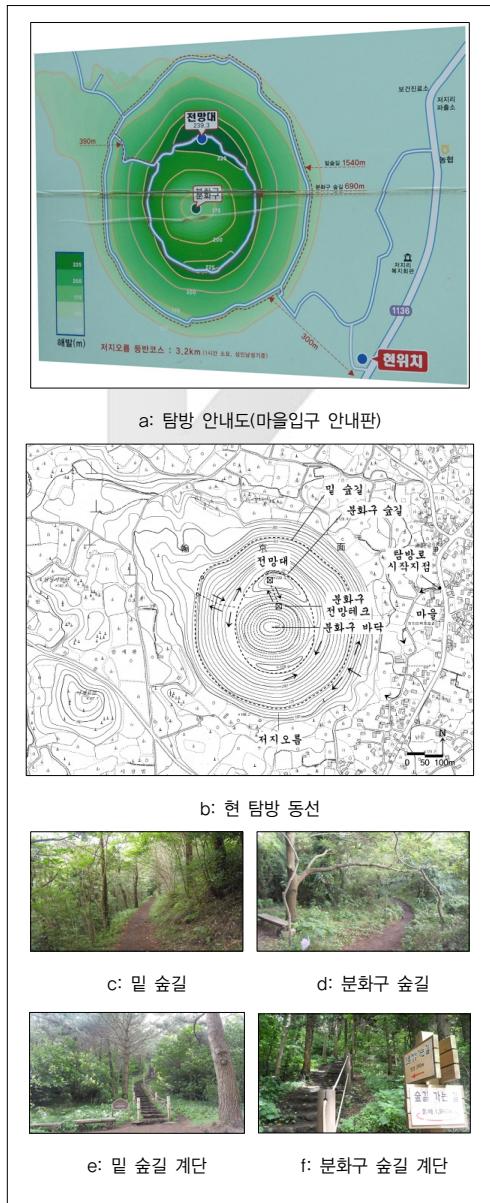


그림 3. 현 오름 탐방로 및 오름 숲길

2. 비교대상지인 산굼부리 문화구 탐방로 현황

천연기념물 제263호인 산굼부리 문화구의 바깥둘레는 2,067m이며, 안쪽 둘레는 756m, 문화구 깊이는 100~146m의 원뿔형 절벽을 이루고 있고, 바닥넓이는 약 8,000평이다. 문화구 안에서 자라는 식물들은 같은 제주도의 한라산에 있는 식물들과도 격리된 상태에서 오랫동안 살아 왔으므로 식물 분포연구에 귀중한 자료가 되고 있다[27]. [그림 4b]와 같이, 문화구 좌측의 중앙 부분에서 시작하여 위로 가는 문화구 둘레 탐방로는 약 450m, 아래로 가는 문화구 둘레 탐방로는 200m 길이로서, 총 개방구간은 650m이다. 즉, 문화구 총 둘레길 1,820m의 35% 만 개방되고 나머지는 일반인이 출입할 수 없도록 폐쇄되어 있다. 관광객들은 주로 문화구 좌측의 중앙 부분에서 문화구를 내려다 본 후, 위로 가는 문화구 둘레 탐방로를 따라 걷고 폐쇄구간 앞에서 되돌아 나오게 되어 있다. 이것은 산굼부리 문화구가 조류의 서식처 역할을 하며, 문화구 남쪽 사면과 북쪽 사면 및 깊이 별로 식물의 종류가 다르고, 변산바람꽃, 금새우난 등 희귀식물도 서식하기 때문에 이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이다[30]. 이러한 탐방로 관리 사례는 저지리 문화구 숲길 탐방로의 대안을 찾는데 좋은 본보기가 되고 있다.

3. 저지오름 탐방로 대안 고찰

대안으로 제시하는 탐방로는 기존의 오름 탐방로에 덧붙여 오름과 연계되어 있는 당숲을 연결하고, 문화구 숲길을 축소하는 것이다[그림 7].

3.1 당숲과 연계

오름 경사면이 시작되는 지점에 위치한 당숲[그림 5a]은 규모가 작고 존재가 알려져 있지 않다. 그 안의 당, 제단은 너무 낡아 허름할 정도이지만, 이 곳은 마을의 역사, 전통문화가 살아 숨 쉬는 곳이다. [그림 5b]에서 제물을 놓는 곳이 당 제단이고, 그 뒤에 신목(神木)인 보리수나무가 있다. [그림 5b]는 2013년 정월 7일 아침에 저지리 당에서 지내는 당제로서, 당숲은 당제를 통해 마을부녀자들에게 위안을 주는 소중한 공간이다. 당숲 구간을 설정하여 오름 탐방로와 연결하면 관광객

등 외지인들에게 제주도의 전통문화경관을 접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될 수 있다. 한국의 전통공간은 루(樓)·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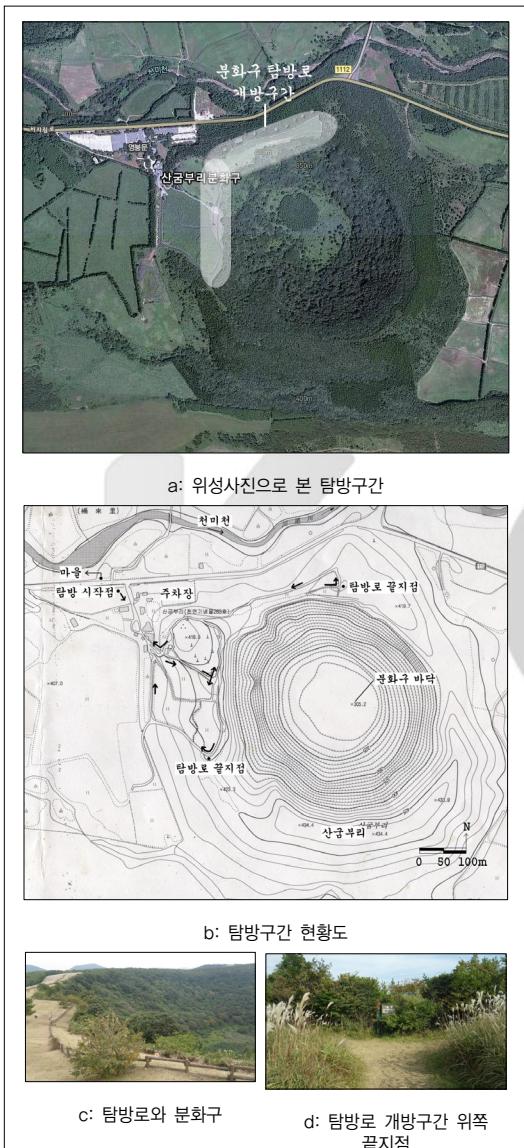


그림 4. 신금부리 분화구의 탐방구간 현황

정(亭)·대(臺)가 자연 가운데 적당한 위치에 자리하고, 자연과 주거공간 사이의 신앙공간에는 장승, 솟대, 성황당 등이 놓여지며. 그 곳이 마을의 안녕과 풍요를

비는 성역화된 공동체 신앙공간인데[31], 저지리 당도 이러한 위치와 일치된다[그림 5a]. 육지의 마을뒷산과 당산숲이 별개의 공간이 아닌 것과 같이, 제주도의 오름과 당숲은 서로 연결된 공간으로서 오름 탐방로에 당숲 공간은 자연스럽게 연계될 수 있다.



그림 5. 저지리 당숲 및 당제

3.2 분화구 숲길을 ‘보전지역’으로 설정

한라산 둘레길이 개장한 지 두 달 만에 비만 오면 진흙탕이 되고 나무들은 뿌리를 드러내고 주변 동물들은 자리를 떠난 사례가 있으므로 더 이상의 올레길 만들기를 중단하고, 지금의 올레길 테마와 원형을 보존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다[32].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제주도 368개 오름을 대상으로 올해부터 2015년 까지 조사를 벌여 이용 가능한 곳과 보전이 필요한 곳을 선별,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조사결과에 대해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해 이용 가능한 오름은 탐방로를 정비해 주변 평소와 연계한 생태탐방 코스로 개발하되, 오름에 개설할 수 있는 탐방로를 2개로 제한하고 분화구 안에는 탐방로를 개설하지 않기로 하였다. 오름 중턱에는 둘레 길을 내지 않고 오름을 보호키로 하였다. 보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오름은 출입을 제한하고 탐방 경로도 공개하지 않을 방침이다[33].

오름은 자연 생태계의 보고로 알려져 있고, 저지오름은 당숲 영역과 연결된 공간이다. 분화구 전망 데크에서는 낮에도 새소리를 들을 수 있었는데, 저녁에는 많은 새들의 잠자리가 되므로 소음 차단과 조류가 쉴 수 있는 영역의 확보가 중요하다. 원형의 분화구 숲길은 현재 분화구 둘레 800m 거리 전체를 한 바퀴 돌아볼 수 있게 되어 있다. 그러나, 이 연구에서 제시하는 대안은 분화구 숲길 계단을 올라와 놓여 있는 좌, 우의 길 중 우측 탐방로는

폐쇄하고, 좌측으로 전망대 주변 구간만 개방하고 나머지 구간은 ‘보전지역’으로 설정하여 출입을 제한하는 것이다. 정상의 전망대 지면에서 260 계단[그림 6b] 아래에 있는 분화구 전망 데크에서 분화구 안의 모습을 위 아래로 보면 ‘새소리가 있는 고요함’ 등의 평온함을 느낄 수 있기 때문에 폐쇄하는 것 보다 그대로 유지하되, 조류 보호를 위해 작은 관찰용 창을 낸 차폐시설이 요구된다. 분화구 전망 데크 까지의 출입은 낮 일정시간에만 할 수 있도록 하고, 늦은 오후부터 이른 오전까지는 출입할 수 없도록 통제될 필요가 있다. 분화구 숲길 계단과 전망대, 분화구 전망데크 등의 기준 시설물 사용을 전제로 할 때, [그림 7]에서 전망대 오른쪽 공간을 전망대 왼쪽과 비슷한 규모로 개방한다면, 개방 구간은 약 240m 거리로서 전체 분화구 숲길의 30%에 해당한다. 참고로, 입장객 수 용력이 고려된 ‘제주 산굼부리 분화구’ 탐방로의 경우 환경(조류 서식처) 보호를 위해 분화구 둘레길의 35% 만 개방되어 있다. 조류가 살고 있는 중요한 서식처의 경우, 조류 관찰에 필요한 전망 공간 이외의 부지에 대해 사람의 출입을 제한하고 보전지역으로 설정하는 것은 국내외 여러 사례에서 찾아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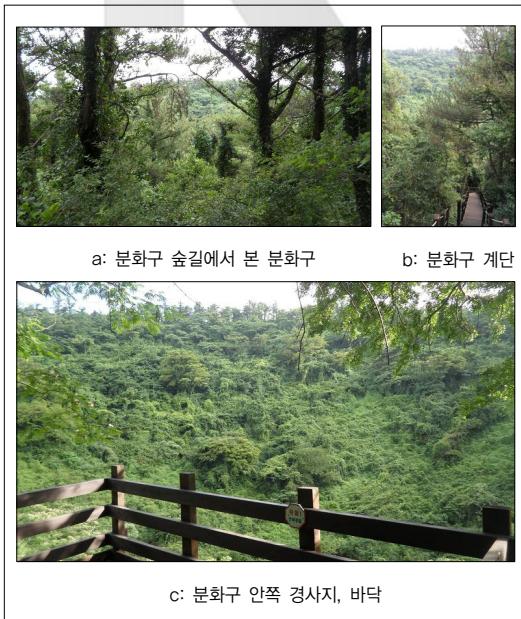


그림 6. 저지오름 분화구 탐방로

참고로, 저지오름에는 일제 말기에 미군의 공격에 대한 방어 진지로 쓰기 위해 구축된 몇 개의 땅굴이 방치되어 있는데, 일제시대 땅굴은 역사교육 현장으로 관리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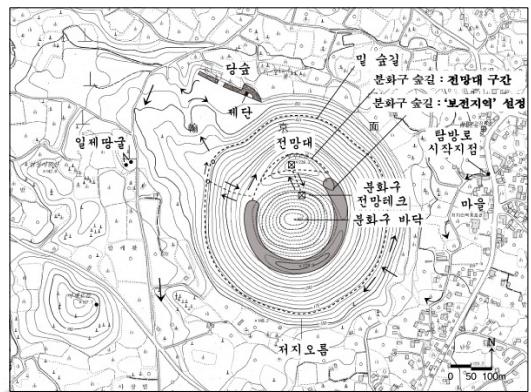


그림 7. 당과 연계한 저지오름 대안 탐방로

V. 대안 탐방로의 의미 고찰

1. 대안 탐방로 모색의 전제조건

제주의 신당은 근래에 관광객을 위한 해안도로 개설, 올레꾼을 위한 올레 코스 정비 등으로 인하여 급속히 훼손되거나 사라지고 있으므로, 보호 대책 수립이 시급하다[24]. 세계문화유산의 경우, 진정성과 함께 그 문화유산의 향유권이 다음 세대에도 지속가능하게 이어질 수 있어야 하며, 세계유산이 소재하는 지방자치단체와 국가는 그 유산을 반드시 제대로 보호, 관리해야 할 책임과 의무를 다 해야 하고 관리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송당리의 송당본향당(제주특별자치도 민속문화재 제9-1호)과 와흘리의 와흘본향당(제주특별자치도 민속문화재 제9-3호) 등은 문화재로 지정되어 보호받고 있으나, 저지리 당은 현재 어떠한 보호 장치 없이 불문율에 의해서만 유지되고 있어, 사전준비 없이 외지인들에게 노출되면 훼손될 우려가 크므로 문화재로 지정하는 등 제도적인 보호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부산 ‘좌수영 성지(左水營 城址)’의 경우 국가사적급의 중요한 임란 성지이지만, 좌수영 성지 당산숲은

현재 마을놀이터로 오용되어 장소의 진정성이 심각하게 왜곡되어 있다[34]. 문화유산이 가치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진정성을 갖추어야 하고 거기에 부여된 의미, 가치가 변질되지 않아야 한다[35][36]. 저지리 당숲 공간 안에는 장소의 의미가 변질될 우려가 있는 벤치, 휴지통, 파고라 등 관광용 시설물이 설치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2. 글로컬문화콘텐츠로서의 당숲 위상 제고

우리의 전통문화를 대변하고 있는 마을숲은 자연유산과 문화유산의 특징을 함께 지니고 있는 복합유산으로서 잘 가꾸어져 후손에게 자랑스러운 국가유산으로, 나아가 세계유산으로 길이 보전되어야 한다[37]. 일반적으로 저지리 당과 같이 당숲은 외지인들로부터의 훼손을 우려하여 노출되어 있지 않고, 숨겨져 있다시피 한 경우가 많다. 일부 올레 이용객들의 무분별한 이용으로 인해 올레길의 경관이 훼손되고, 관광객을 위한 도로 개설 등으로 인해 제주 신당이 급속히 훼손되고 있는 시점에서, 당숲에 대한 이해가 적은 일반인들에게 그 존재를 노출시키는 것이 적절하지 않을 수 있다. 그러나, 오름의 존재로 인해 제주도가 '세계7대 자연경관'으로 선정되었고 국내외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당과 오름을 찾게 되고 개발 압력도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므로, 이제는 당숲의 존재를 적극적으로 널리 알리고 아름답게 가꾸어 나가려는 노력이 필요한 때이다. "제주를 찾는 중국인 관광객들에게, 간단히 접근하면서도 우리 문화와 전통을 충분히 알릴 수 있는 장소의 기회가 전혀 없다는 것이 아쉽다"는 한 여행사 대표의 이야기 [38]는, 제주 전역에 있는 대부분의 당이 방치되어 있으며, 당의 존재·가치에 대한 일반인들의 인식이 많이 부족하다는 것을 대변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글로벌시대에 문화콘텐츠는 로컬리티와 글로벌리티를 같이 갖추어야 하며, 제주도의 고유한 콘텐츠로서의 글로벌문화콘텐츠 생산이 필요하다. 따라서 제주도 당숲은 글로벌리티 이전에 국내에서 이들 숲이 올바로 알려지고 그 가치가 사회적으로 공유되어야 한다. 그 존재가 알려지지 않고 방치되어 있는 저지리 당숲은 오름과 연계된 대안 탐방로를 통해 당숲의 존재에 대한 외

지인의 인식 증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대안 탐방로 모색의 전제조건 충족을 통해 제도적인 관리가 이루어진다면 feng-shui forest, satoyama, shinto shrine forest 등과 같이 저지리 당숲도 세계적으로 주목받을 수 있다.

VI. 결 론

제주도 농어촌마을의 삶과 문화는 당 및 오름과 불가분의 관계로 엮어져 있다. 저지리 당과 같이 대부분의 당숲은 제도적으로 관리되지 않고 방치되어 있으나, 이제는 당숲을 적극적으로 알리고 아름답게 가꾸어 나가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오름 탐방로와 연계되어 있지 않아 그 존재가 알려지지 않고 있는 저지리 당의 인식 증진을 위해 대안으로 제시하는 오름 탐방로는 기존의 탐방로에 당숲을 연계하고, 전망대 주변 구간을 제외한 분화구 숲길을 '보전지역'으로 설정하는 것이다. 이것은 실생활에 살아있는 전통문화경관과 접할 수 있는 기회 제공 및 오름 환경의 보호를 위한 것이다. 당과 오름이 각종 개발로 인해 훼손되고 있는 현실에서, 이러한 대안 탐방로 모색의 전제조건으로서 문화재로 지정하는 등 제도적인 보호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 세계자연유산인 제주도에서 당과 오름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는 제주도 농어촌마을은 탐방로를 따라 그 테마와 원형이 잘 보전·관리된다면 지역성과 세계성을 모두 갖춘 제주도 고유의 글로컬문화콘텐츠로서의 가치를 지닌 곳으로 인정받을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제주도 당숲의 실체 재인식, 가치 제고 및 당과 오름에 대한 문화유산 향유권의 지속성을 유지하기 위한 관리체계를 모색하는데 일정 부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참 고 문 헌

- [1] 김승태, 한동호, 제주의 오름 368(1·2), 대동출판사, 2008.
- [2] 제주특별자치도, (사)제주전통문화연구소, 제주신당조사 2009 서귀포시권, 도서출판 각, 2009.

- [3] 박치완, “왜 글로벌문화콘텐츠인가?”, *인문콘텐츠*, 제20호, pp.9-33, 2011.
- [4] http://www.international.icomos.org/charters/venice_e.htm
- [5] 최연구, *문화콘텐츠란 무엇인가*, 살림, 2006.
- [6] 김상현, 김나윤, “문화콘텐츠 개발을 위한 지식정보체계”,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제11권, 제12호, pp.711-722, 2011.
- [7] 심승구, *문화재 활용을 위한 정책기반 조성연구*, 문화전략연구소, 2006.
- [8] 김효정, “한국의 유네스코 자연성지 잠재자원 현황과 특성-천연기념물로 지정된 식물유산을 중심으로”,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제12권, 제11호, pp.492-501, 2012.
- [9] 이원호, 김재웅, “명승 문화재의 경관자원 발굴을 위한 조망지점 분석-해남 달마산 미황사 일원(명승 제59호)을 중심으로”,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제13권, 제9호, pp.429-439, 2013.
- [10] 김효영, 박진완, “문화콘텐츠 특수성을 반영한 문화기술(CT) 분류체계 연구”,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제13권, 제5호, pp.183-190, 2013.
- [11] 어정연, “장소 가치 개념에서의 플레이스 브랜딩 평가 방안”,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제13권, 제5호, pp.199-209, 2013.
- [12] 강현경, 방광자, 이승제, 김학범, “생육환경 분석을 통한 마을숲의 관리방안-경상도와 강원도의 주요 마을숲을 중심으로”, *한국전통조경학회논문지*, 제22권, 제2호, pp.63-74, 2004.
- [13] 김학범, 장동수, *마을숲-韓國傳統部落 의 堂金과 水口막이-*, 열화당, 1994.
- [14] 주강현, 장정룡, 황현만, 조선땅 마을지킴이, 열화당, 1993.
- [15] 최재웅, 김동엽, “마을숲문화가 있는 농촌 마을숲의 구조 및 보전실태에 관한 연구”, *한국정원학회지*, 제18권, 제3호, pp.51-64, 2000.
- [16] 최원석, *한국의 전통생태학: 한국의 전통적 경관 보완론*, 사이언스북스, pp.76-103, 2004.
- [17] 최재웅, 김동엽, “농어촌마을 당산숲의 입지 및 구조 특성”, *한국전통조경학회지*, 제27권, 제1호, pp.35-47, 2009.
- [18] 최재웅, 김동엽, “하천경관으로서 당산숲·마을숲의 경관생태학적 기능 고찰”, *환경정책연구*, 제4권, 제2호, pp.31-55, 2005.
- [19] 최재웅, 김동엽, “천연기념물 지정 당산숲·비보숲의 명칭 부여 및 지정 물량 실태 고찰”, *문화재*, 제43권, 제1호, pp.28-55, 2010.
- [20] 문화재청 문화재위원회, 부산 구포동 팽나무 명칭 및 유형 변경, 천연기념물분과위원회 제10차회의 내용 및 결과, 2008.
- [21] <http://www.koreabrand.net/net/kr/book.do>
- [22] J. Kwon, “Korean Landscape and MAEULSOO -Ps , the Korean Village Groves,” Proceeding of International Symposium on the Traditional Beauty of the Korean Garden as Korean Culture, Korea Forest Research Institute, pp.47-54, 2012.
- [23] 강경희, “마을의 안녕·풍요·화합을 기원하는 제의”, 유네스코 제주 세계자연유산마을 성산리, 제주특별자치도·(사)제주역사문화진흥원, pp.96-110, 2010.
- [24] 김순이, *신화의 보금자리인 신당의 위기, 어찌할 것인가*, 제주문화원, pp.113-114, 2010.
- [25] 강성현, *自然-景觀의 調和와 濟州·濟州오름, 도서출판 열립문화*, 2010.
- [26] 최재웅, 김동엽, 조록환, 김미희, 안옥선, “당(堂)과 오름을 중심으로 한 제주도 해안·중산간마을의 공간 특성 사례연구”, *한국전통조경학회지*, 제30권, 제2호, pp.101-109, 2012.
- [27] <http://www.cha.go.kr>
- [28] 梁日新, 文錦淑, 洪又淑, 吳成贊, ‘제주의 마을’시리즈 ⑯ 翰京 중산간의 핵심마을 椅旨里, 도서출판 반석, 1991.
- [29] 제주특별자치도, (사)제주전통문화연구소, 제주 신당조사 2008 제주시권, 도서출판 각, 2008.
- [30] 윤무부, 서민환, 이유미, *한국의 천연기념물*, 교학사, 1998.
- [31] 안계복, “풍류의 정원, 樓·亭·臺”, *한국전통조*

- 경학회지, 제23권, 제1호, pp.150-157, 2005.
- [32] <http://www.jeju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944639>
- [33]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3/01/16/0200000000AKR20130116150500056.HTM?from=search>
- [34] 최재웅, 김동엽, “부산 ’좌수영 성지(左水營 城址)’의 진정성(authenticity) 회복방안 고찰”, 문화재, 제44권, 제1호, pp.138-161, 2011.
- [35] http://www.international.icomos.org/charters/ve_nice_e.htm
- [36]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 당산숲 탐방길,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 농촌환경자원과, 2013.
- [37] 김학범, 월간문화재사랑: 복합유산, 마을숲, 제52호, pp.22-26, 2009.
- [38]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52&aid=0000374732>

저자 소개

최 재 응(Jai-Ung Choi)



정회원

- 1987년 2월 : 성균관대학교 조경학과(농학사)
- 2008년 8월 : 성균관대학교 조경학과(조경학박사)
- 1993년 8월 ~ 현재 :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 농업연구사

<관심분야> : 문화경관, 농촌 당산숲, 경관생태

김 동 엽(Dong-Yeob Kim)



정회원

- 1992년 5월 : Virginia Polytechnic Institute & State University, Department of Forestry(임학박사)
- 1995년 3월 ~ 현재 : 성균관대학교 조경학과 교수

<관심분야> : 도시녹지, 마을숲, 인공지반녹화